

# 외동아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Mother Child Relationship and Sociability between the only Children and with Sibling Children.

김 숙 경  
Kim, Sook Kyoung

## ABSTRACT

The present study compared mother-child relationships and sociability of only children with that of children with siblings.

The mother of 105 only children and 179 children with sibling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on maternal attitudes and children's sociability. The children were all enrolled in kindergartens in Seoul. The data analysis was with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The mothers of only children reported that they were more overprotective and obedient to the children than mothers of children with siblings. Only children were less autonomous in sociability than children with siblings. 'Protective' and 'obedient' attitudes of mothers of only children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egocentrism' of the child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autonomy' of the child.

## I. 서 론

지금까지 외동아(Only Child)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이들에 대한 지속된 편견에 의해 방해받아 왔었다. 특히 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들은 외동아가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인성과 사회적 행동을 갖는 것으로 보아왔다.

또한 이러한 생각은 70년대 초까지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져왔다. Thompson(1974)이 출생순위와 가족크기를 연구한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에 따르면, 외동아는 일반적으로 이기적이고, 외로워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며 부적응된 인간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자녀만 갖는 가정이 많아지고, 국가적인 정책이 실시되면서 이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계인구의 1/4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는 한자녀가정을 국가적 목표로 세우고, 이를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정책적인 의도와는 달리, 이들 외동아 세대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 1989년도 이화여대 가정 관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임.

의 US 뉴스 앤드 윌트리포트지의 기사(조선일보, 1986년 6월 5일)에 따르면, 이들은 의타심이 강하고, 교만하고, 낭비성이 강하고 노동을 싫어하며 공부만 잘하는 “高分底能人(자기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렇게 된 중요한 원인이 가정교육의 결함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교육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최근의 연구로서 Falbo와 Polit(1987)는 지금까지 외동이의 관련된 141개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외동이가 형제와 함께 자란 경우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외동이가 더 지적이고, 사교적이며, 학교에서의 문제행동도 적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편견에 과학적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외동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라기 보다는 과거로부터 지녀왔던 편견에 의해서 생긴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고정관념을 획득하게 되는 경향에 대해서 Hamilton과 Gifford(1976)는, 사람들은 다수의 구성원이 있는 집단보다 소수의 사람이 속해있는 집단의 행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특히, 부정적인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보다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수집단에 대해 더 과잉반응하며, 이들을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들로 고정관념화하기 쉽다. 여기에서 소수 집단은 외동이의 경우로, 다수의 집단은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동이는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외동이의 수가 매우 적었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며,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출생순위면에서 외동이는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여자형제만 있는 외아들과 남자형제만 있는 외딸을 한자녀만 있는 경우와 함께 다루어 왔다.

그러나 한자녀만 갖는 가정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인구과잉과 가족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시대에 이들이 과연 평판처럼 잘못되어 있고, 불행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외동이기 때문에 비협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의존적이며, 자율성이 부족하고 부적응하는 인간이 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형제있는 아동(Sibling Child: 앞으로는 ‘형제아’라 칭함)과 비교하고, 이들의 모-자녀관계도 동시에 비교해 봄으로서, 외동이에 대한 편견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A. 외동이에 대한 편견

사람들은 대개 외동이기 때문에 심각한 결함을 갖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자식이 많을수록 좋다고 여겼던 과거에도 외동이는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들과 이들 부모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겨왔다.

Blake(1981)는 195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외동아가 되는 것이 이익인가? 또는 불이익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이에 76%가 불이익하다고 대답하였고, 1970년의 재조사에서도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1977년의 3차조사에서는 67%가 불이익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인가?”라고 재질문하였을때 60%가 성격과 인성에 결함을 지적하였다.

즉, 외동아는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하고, 걱정이 많고, 싸우기 좋아하며, 응석받이이거나 과잉보호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나머지 22%는 외로운 아동을 보낸다고 하였으며, 2%는 이들이 교사나 이웃, 친척, 또는 다른 사람의 편견에 의해 불이익을 겪는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인디애나폴리스의 다산에 관한 연구에서 면접한 부부들이 둘째아이를 갖는 두번째 중요한 이유로, 첫째아가 외동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Falbo, 1978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외동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연구되거나 통계적으로 보고된 적은 없지만, 이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 B. 외동아의 특징

### 1. 형제·자매의 부재로 인한 영향

외동아의 가장 큰 특징은 형제자매가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 의하면, 형제가 개인의 발달을 위해 결정적인 학습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형제의 부재는 이러한 경험을 학습할 수 없게 하여 발달상의 많은 결함을 낳게 한다는 것이다.(Falbo & Polit, 1986)

Falbo와 Polit(1987)에 의하면 외동아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인성발달이 형제의 성별이나 형제의 수, 연령터울과 같은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히려 이들은 아동발달에 있어서 형제의 영향을 연구하는데 “자연적인 실험(natural experiment)”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집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inuchin(1974; 이명홍, 1988역)과 같은 가족체계이론가들은 형제가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기술, 자율성, 정체감 형성의 결함 등 부정적인 특성만을 갖게 된다고 예견하였다. 또한 지적인 면에서 외동아는 부모의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월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Zajonc와 Markus(1975)는 손위형제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는데 외동아는 가르쳐주어야 할 형제가 없기 때문에 지적불연속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형제의 수가 많아지면 손위형제가 대리부모(pseudo-parents)의 역할을 해야하고, 나이 어린 동생들을 상대하게 되므로 자신의 지적인 성장에 장애가 된다(Blake, 1981)는 견해도 있다.

또한 형제와 함께 자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형제간에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애정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므로 의심이 많고 공

격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 Hurlock(1964)은 형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성이나 인간적인 면의 발달이 더딜 우려는 있으나 형제간의 경쟁심이나 질투에 의해 성격이 비뚤어지게 될 가능성은 적은 장점도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형제의 유무에 의한 영향은 제각기 달리 보고되고 있으며, 이것이 인성발달에 결정적인 것은 될 수 없고, 오히려 외동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잘 적응된 사람으로 성장할지의 여부는 그들의 부모-자녀관계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 최근의 주장들이다.

## 2. 모-자녀관계의 특질로 인한 영향

외동이는 가정에서 부모-자녀관계, 특히 모-자녀관계가 유일한 초기의 사회화의 수단이다.

외동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부모의 애정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어서 지나친 애정과 과보호를 받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역할경험을 학습할 기회가 박탈된다. 그 결과는 의존적이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무절제하고 퇴행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상로, 1986)

그러나 Schachter(1959)는, 외동이의 부모들은 양육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불안과 긴장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불안이 아동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동기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스트레스를 갖고 있을 때에도 더 친절하게 아이를 대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 부모

는 아이에게 높은 기대수준을 갖게 되고 이는 성취동기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Falbo & Polit, 1987) 즉, 하나뿐인 아이에 대한 기대는 어머니에게 확고한 동기를 갖게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며, 이러한 관계는 자녀가 높은 성취를 이룰 경우에 긍정적인 자아상(self-image)을 확립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외동이의 부모의 행동은 이들을 갖게 되는 동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는 외동이의 또 다른 특성을 낳게한다고 하였다. Falbo(1982)는 편부모의 외동이는 지능이 낮고, 타의에 의해서 외동이를 가진 부모는 과잉보호하게 되며, 생활패턴의 변화를 싫어해서 한자녀만 낳은 부모는 자녀에게 성인과 같은 조숙한 행동을 일찍부터 강요한다고 하였다. 특히 외동이의 경우는 편모의 슬하에서 성장하는 부친부재의 아동이 많은데, 이는 외동이에 대한 편견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이러한 부부재로 인한 불이익들을 외동이 자체의 문제로 여기게 된다.

## C. 외동이에 대한 선행연구

지금까지 외동이의 편견에 대해서 조사되어진 것으로 미국과 중국의 연구결과가 서로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Falbo(1978)는 외동이가 이기적이고, 외로워하고, 형제와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행동은 좀더 자율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는 외동이조사(Only Child Survey)라는 이름하에 대학생 77명을 대상으로 몇 가지 실험을 실시한 결과, 외동이가 말이나 막내

보다 더 협동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이기적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또한 외동이 자신은 형제가 없기 때문에 외롭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반면에, 형제아는 외동이가 형제가 없기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과 타인의 지각의 차이인 것으로 보여지며, 타인의 평가가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외동이는 스스로 자율적인 결정을 형제아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금까지 외동이에 대한 편견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 행해진 Jiao와 Ji (1986)의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은 취학전과 취학직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협동성 (cooperation), 또래간에서의 신뢰 (peer prestige), 자기중심성 (egocentrism)에 대해 자기보고가 아닌 동료의 평가에 의해서, 외동이가 덜 협동적이고 또래의 신뢰도 적게 받으며 더 자기중심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특히 외동이가 자기중심성에서 부정적인 점수를 나타낸 것은 중국의 유치원과 국민학교가 훈육, 윤리적 도덕, 집단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육이 지나친 인지 중심의 교육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성을 조장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두연구는 그 대상이 서로 다르고,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Falbo(1982)는 외동이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아동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인다고 설명하였다. 즉, 성장함에 따라 외동이는 동료와의 관계를 경험하고, 부모의 계속적인 주의를 독점함으로써 다른 아이들과의 많은 차이가 줄어들거나 제거되어진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외동이에 관한 연구는 문화권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우리와 유사한 가족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한자녀를 갖게 되는 동기에 있어서 서로 다르므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D.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1. 외동아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문제 2. 외동아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문제 3.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 발달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문제 4.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 발달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문제 5.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 발달과 모-자녀관계는 어떤 상관성이 있을 것인가?

이상의 연구문제에서 사용된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동아 : 형제가 없이 단하나만 있는 한자녀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2) 형제아 : 출생순위나 형제자매의 성별 구성과는 상관없이 두자녀 이상의 가정

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3) 모-자녀관계: 바람직하지 못한 모-자녀관계만을 말하며 지배적, 보호적, 복종적 태도를 포함한다. 지배적태도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고 절대적 권력으로 통제하려는 태도이다. 보호적 태도란, 자녀에 대한 염려, 불안, 공포감을 품고 지나치게 자녀를 보호, 간섭하려는 태도이다. 복종적 태도란, 자녀의 요구나 주장은 무엇이나 받아주는 태도이다.

4) 사회성발달: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협동성, 자기중심성, 자율성, 대인적응성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협동성, 자율성과 대인적응성은 긍정적인 행동이며, 자기중심성은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말한다.

### Ⅲ. 연구 방법

####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서울 시내 4개구에서 7개유치원을 선정하여, 만 5,6세의 외동이 105명(남아 72명, 여아 33명)과 형제아 179명(남아 95명, 여아 8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Falbo와 Polit(1987) 그리고 Blake(1981)의 연구에서 외동이가 형제아에 비해서 사회적응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계층에 따른 대상표집에 어려움이 있어 중류층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그리고 두집단의 가정환경적 성격을 비교해본 결과, 외동이의 경우에 있어서 아버지의 연령, 아버지의 학력과 가계소득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저한 차이는 아니

었으며, 두집단의 특성이 유사하게 표집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 B. 측정도구

##### 1. 모-자녀 관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코리안테스팅센터에서 제작한 부모-자녀관계 진단검사지(오기선, 1965)를 선택하여, 유치원 아동의 어머니 태도에 적합한 문항을 선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로서 '지배', '거부', '보호', '복종', '모순불일치'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외동이 어머니에게 특히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지배', '보호', '복종'의 3가지 태도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영역별로 12문항씩 선택하였으며, '흔히 있다'로부터 '거의 없다'까지의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본 도구의 각 영역별 Cronbach의  $\alpha$ 값은 .63 ~ .76이었다.

##### 2. 사회성발달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성발달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협동성', '자기중심성', '자율성'과 '대인적응성'의 4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어머니에 의한 평가방법을 실시하였다. 검사도구는 Vineland의 사회성 속도검사(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74)와 Pease와 그의 동료에 의해 제작된 사회적 능력검사지(박범실, 1987에서 재인용)와 Jiao와 Ji(1986)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내용과 김숙자(1982)의 자율성에 관한 질

문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검사지에 대한 내용 검토는 아동학 교수님과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의뢰하여, 모호한 문항은 제외하고 각영역별로 적절한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문항만으로 재구성하였다.

검사지는 각 영역별 8개문항으로 총 32개의 문항을 선택하고, 이를 예비조사한 결과 문항간의 상관이 .40 이하로 나온 4개 문항을 제외하여 28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마다 '아주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행동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본 도구의 각 영역별 Cronbach의  $\alpha$ 값은 .68 ~ .75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참고자료로서 외동이 어머니에게 자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조사하였다.

### C.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1988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의 어머니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질문지를 수정, 재구성하여 9월 12일~2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 모-자녀관계, 사회성발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외동아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와 사회성발달 정도의 차이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test를 실

시하였다. 그리고 모-자녀관계와 아동의 사회성발달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값을 사용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A. 모-자녀관계

연구문제 1인, 외동아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태도중에서 '보호적태도'와 '복종적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외동아를 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불안함을 많이 갖고 있으며 과잉보호하고 억제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동아의 부모자녀 관계를 '복종적 억제형'이라고 규정한 Symonds (1949: 정갑순, 1980에서 재인용)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가 외동아의 경우 형제아 보다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Falbo와 Polit(1986)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한 자녀를 갖게 되는 동기로서 해석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대상자의 38.5%의 어머니들이 신체적인 이유로 더 낳을 수가 없었거나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라고 대답하였는데, Falbo(1982)에 의하면 이러한 경향이 자녀를 과보호하고 억제적으로 키우는 중요한 이유

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동기를 갖는 부모들로 인해서, 보호적 복종적인 태도의 점수가 형제아의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연구문제 2인, 성별에 따른 외동이의 형제아의 모-자녀관계에 관한 차이를 표로

< 표 1 > 외동이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의 차이

독립변인 종속변인	외동이 ( N=105 )		형제아 ( N=179 )		t
	$\bar{X}$	S. D	$\bar{X}$	S. D	
지배적 태도	2.13	0.25	2.09	0.28	1.19
보호적 태도	2.09	0.36	1.97	0.34	2.74**
복종적 태도	1.79	0.30	1.64	0.25	4.41***

\*\* P < .01                      \*\*\*p < .001

< 표 2 > 남녀 각집단별 외동이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의 차이

모-자녀관계	성별 형제유무	남 ( n=167 )			여 ( n=117 )		
		$\bar{X}$	S. D	t	$\bar{X}$	S. D	t
지배적 태도	*외 동 이	2.13	0.26	0.99	2.14	0.23	0.79
	*형 제 아	2.08	0.30		2.10	0.26	
보호적 태도	외 동 이	2.07	0.38	2.44**	2.14	0.33	1.75
	형 제 아	1.93	0.32		2.06	0.36	
복종적 태도	외 동 이	1.77	0.32	2.87**	1.85	0.27	3.69**
	형 제 아	1.64	0.25		1.65	0.26	

\*\* P < .01                      \*\*\* P < .001  
\*외동이 ( n=105)                      \*형제아 ( n=179)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2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호적 태도’에서 여아는 외동이와 형제아간에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남아는 외동이가 형제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남자의외동이 남자형제아에 비해



어머니의 보호와 간섭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남아에게 여아보다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나, 상대적으로 남자의동이 이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부모의 간섭과 보호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겨진다.

**B. 아동의 사회성 발달**

연구문제 3인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 발달

달정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음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율성’ ( $t=3.60, p<.001$ )에서 외동아가 형제아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성숙도 검사의 ‘스스로 하기’ 영역에서 외동아가 가장 낮고 중간아이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경희(1978)

<표 3>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 발달의 차이

종속변인	외동아 (N=105)		형제아 (N=179)		t
	$\bar{X}$	S.D	$\bar{X}$	S.D	
협동성	3.74	0.59	3.85	0.62	1.57
자기중심성	3.20	0.78	3.09	0.75	1.16
자율성	3.29	0.64	3.56	0.57	3.60***
대인적성성	3.64	0.22	3.59	0.74	0.58

\*\*\*  $p<.001$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료평가에 의해서 외동아가 더 자기중심적이고, 형제아가 협동성과 또래의 신뢰를 더 많이 얻는다고 한, Jiao와 Ji(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부모들이 무조건 외동아에게 좋은 것만 주려하고 자녀를 제일로 생각하는 행동에 의해서 이기적인 아이로 만들었다는 Ching(1982)의 견해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중국의 연구결과와의 이러한 차이는 이들 부모들이 한자녀를 갖게 되는 동기가 강압

적이며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반면에,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보다 자발적인 동기가 많았기 때문에 해석된다. 또한 중국의 연구는 동료평가와 교사평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머니의 평가에 의해서 조사된 본 연구와 비교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형제관계가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Baskett과 Johnson(1982)의 견해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며, ‘복종적 익애형’의 부모 밑에서 성

장한 외동이가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4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성발달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에 따르면 ‘협동성’, ‘자기중심성’과 ‘대인적응성’에서 남자외동이와 남자형제아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여자외동이와 여자형제아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자율성’에

<표 4> 남녀 각집단별 외동이와 형제아의 사회성발달 차이

사회성	성 별	남 (n = 167)			여 (n = 117)			
		형제유무	$\bar{X}$	S. D	t	$\bar{X}$	S. D	t
협 동 정	외 동 이		3.78	0.60	0.59	3.66	0.59	1.88
	형 제 아		3.83	0.66		3.88	0.57	
자 기 중 심 성	외 동 이		3.25	0.76	1.09	3.10	0.84	0.22
	형 제 아		3.12	0.78		3.07	0.73	
자 율 성	외 동 이		3.25	0.69	2.74**	3.36	0.54	2.02*
	형 제 아		3.53	0.62		3.58	0.51	
대 인 적 응 성	외 동 이		3.69	0.73	0.57	3.53	0.70	0.08
	형 제 아		3.62	0.74		3.54	0.76	

\* p < .05

\*\* p < .01

· 외동이 (n = 105)

· 형제아 (n = 179)

있어서는 남녀 모두 외동이가 형제아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형제유무에 따른 차이를 ‘자율성’에서만 나타냈다.

### C. 모 - 자녀관계와 아동의 사회성발달과의 관계

연구문제 5인, 외동이와 형제아의 모 - 자녀관계와 사회성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동이 어머니의 ‘보호적’, ‘복종적’ 태도는 아동의 ‘자기중심성’과 정적상관을 나타내며 ‘자율성’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같은 맥락에서, 형제아 어머니의 ‘보호적’, ‘복종적’ 태도는 아동의 ‘자기중심성’과 정적상관을 나타내며 ‘복종적’ 태도만이 ‘자율성’과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잉보호를 하는 어머니는 자녀로 하여금 의존적이고 유아퇴행성을 갖

<표 5> 외동아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가 사회성 발달간의 상관관계

사회성	구 분 모-자녀 관계	외 동 이 ( n = 105 )			형제아( n = 179 )		
		지 배 적	보 호 적	복 종 적	지 배 적	보 호 적	복 종 적
협 동 성		-0.060	-0.040 **	0.002	0.053	-0.038 *	-0.121 **
자 기 중 심 성		0.125	0.259 **	0.204 *	0.139	0.173 *	0.212 **
자 율 성		-0.045	-0.320 ***	-0.266 ***	0.018	-0.081	-0.224 **
대 인 적 응 성		0.158	0.037	-0.160	0.014	-0.013	-0.110

\* p < .05      \*\* p < .01      \*\*\* p < .001

게 하고 적극성과 독립심이 결여되며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성장하며, 어머니의 애적인 태도 또한 아이를 퇴행적, 신경질적으로 만들뿐 아니라 자주성과 자율성을 감소시킨다는 이상로(1986)와 Hurlock(1964)의 견해와 다소 일치하는 것이다. 즉 과보호적이며 복종적 태도는 외동아와 형제아 모두에게 자기중심성과 자율성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표 3> 과 비교해 볼때 ‘자율성’에서만 외동아와 형제아간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외동아 어머니의 보호적 태도가 자율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형제아의 어머니들은 또 다른 자녀에게 주의가 분산되므로 한 자녀에게만 집중적인 간섭이나 보호를 할 수 없는 반면에, 외동아는 혼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보호를 받게 되고,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의존적이고 비자율적인 아이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외동아와 형제아 없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에 장애가 있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았다. 즉, 외동아가 비협동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부적응하는 아동이 된다는 편견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만 형제아 보다 덜 자율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다른 연구결과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외동아의 어머니가 보호적이며 복종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외동아의 사회성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보호적 복종적인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아동의 부정적인 특성을 본 연구대상의 외동아들이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서, 이상의 결과에 대해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의 사회성 질문지는 어머니의 관찰에 의한 평가방법이므로 부모의 후광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제보다 자신의 아이를 더 좋게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외동아와 형제

아의 경우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동이 어머니에게만 후광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한 모-자녀관계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에 대한 해석은 내릴 수 없는 제한점이 따른다. 즉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의 점수가 높다고 해서 긍정적인 태도의 점수가 낮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를 요한다. 따라서 의동이 부모가 비의동이의 부모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Falbo와 Polit(1986)의 문헌연구결과와 김진남(1987)의 의동이 어머니가 애정·수용적 태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결과로 보아, 이들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긍정적 인 부모태도에 의해서 상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이러한 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김진남(1987)의 연구결과를 보면, 의동이 어머니는 학력이 높을수록 과보호적이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과보호하고 자녀중심적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두자녀 이상의 어머니는 교육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과보호적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본 연구의 대상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류이상이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정도도 고졸이상으로 높게 분포되었으므로, 이러한 가정환경적 특성이 의동이 부모의 과보호적이며 익애적인 양육태도의 차이를 낳게 한 것일수도 있다고 보인다.

세째,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태도에 의해서 형제관계에 의한 결함을 보상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성진과 이기우(1986)는 의동이의 성격적 특성과 대인관계 변인이 높게 나타난 원인을 부모들이 의동이의 사회성발달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깨닫고 일찍부터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사회성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래친구나 친척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줌으로서 사회생활을 많이 경험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자녀 가족회나 캠프는 이러한 목적하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였다.(한겨레신문, 1986년 6월 5일)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므로 분명한 비교는 할 수 없었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성에서 중국의 Jiao와 Ji(1986)의 연구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은 두 나라간에 의동이를 갖는 동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중국에서는 정책적인 강요에 의해서 임신한 부인의 낙태를 권유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의 어머니들은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한자녀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소 신체적인 이유에 의한 경우도 있었지만, 자발적인 동기와 부부합의에 의해서 한자녀만을 결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이 자녀의 보다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나타내게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동이 어머니의 과잉보호와 익애적인 태도가 반드시 사회성발달에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때, 의동이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새로운 방향으로 대치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편견만을 갖기 보다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다각적인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의 자율성을 키워주는 부모의 태도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정책적인 강요보다는 여러가지 교육이나 상담시설을 제공해줌으로서 중국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방지하면서 효율적인 가족계획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외동아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해서 여러가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제한하였다. 특히 여자외동아의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효과를 밝히는데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는 출생순위와 가족크기를 사회계층, 연령, 모의 직업유무등을 고려할때 보다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숙자(1982), “어머니의 간섭이 자녀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진남(1987), “외동아와 두자녀이상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사논문.  
 미누친, S. (1974), 「가족과 가족치료」, 이명홍(역), 서울: 이대출판부, 1988.)  
 박범실(1987),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기선(1965), “부모-자녀관계 진단 검사 요강”, 서울: 코리안테스팅 센터.  
 이경희(1979), “취학전 아동의 사회성숙도에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로(1986), 「성격과 행동의 지도」,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이성진, 이기우(1986), “한자녀 가정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pp. 1 ~ 55.  
 정갑순(1983), “또래 집단에서의 어린이 사회성발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행동과학연구소(1974), “사회성숙도 검사”,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Baskett, L. M. and Johnson, S. M. (1982). The young child's interactions with parents versus siblings: A behavior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53, 643-650.  
 Blake, J. (1981). The only child in America: Prejudice versus performance. Population and Development in Review, 1, 43-52.  
 Ching, C.C. (1982). The one child family in China: The need for psychosocial research. Studies in Family Planning, 13, 208-212.  
 Falbo, T. (1977). The only child: A review.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33, 47-61.  
 Falbo, T. (1979). Only children, stereotypes, and research. In M. Lewis and A. Loenard, (Eds.), The child and its family. New York, NY: Plenum, 143-168.  
 Falbo, T. (1982). The one-child family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issues and results. Studies in Family Planning, 13, 212-215.

- Falbo, T. and Polit, D.F. (1986). A quantitative review of the only-child literature: Research evidence and theory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00, 176-189.
- Falbo, T. and Polit, D.F. (1987). A only child and personality development: A quantit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09-325.
- Hamilton, P.L. and Gifford, R.K. (1976). Illusory correlation in interpersonal perception: A cognitive basis of stereotypic judgm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392-407.
- Harlock, E.B. (1964). Child development. (4th ed. Rev.). New York, NY: McGraw-Hill.
- Jiao, S. and Ji, G. (1986). Comparative study of behavioral qualities of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7, 357-361.
- Schachter, S. (1959). The psychology of affili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Thompson, V.D. (1974). Family size: Implicit policies and assumed psychological outcomes. Journal of Social Issues, 30, 93-124.
- Zajonc, R.B. and Markus, G.B. (1975). Birth order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Psychology Review, 82, 74-88.



- 3) 대학교 졸업 : (                    ), (                    )  
 4) 대학원 이상 : (                    ), (                    )

7.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은?

- 1) 39 만원 이하 (                    )      3) 50 ~ 59 만원 (                    )  
 2) 40 ~ 49 만원 (                    )      4) 60 ~ 69 만원 (                    )  
 5) 70 ~ 79 만원 (                    )      8) 100 ~ 109 만원 (                    )  
 6) 80 ~ 89 만원 (                    )      9) 110 ~ 119 만원 (                    )  
 7) 90 ~ 99 만원 (                    )      10) 120 만원 이상

\* 8 ~ 11 번의 사항은 한자녀를 가진 어머니만 대답해 주십시오.

8. 한 자녀를 두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 1)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                    )  
 2)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                    )  
 3) 부부 중심의 생활을 증진하므로 (                    )  
 4) 어머니의 사회활동(직장)을 고려해서 (                    )  
 5) 신체적인 이유로 더 낳을 수가 없어서 (                    )  
 6) 인구문제 때문에 (                    )  
 7) 사회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                    )  
 8) 부 혹은 모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                    )

9. 누구의 의견에 따라 한자녀를 두게 되었습니까?

- 1) 부모의 합의 (                    )  
 2) 부의 의견 (                    )  
 3) 모의 의견 (                    )  
 4) 타인의 권유 (                    )

10. 어머니는 한자녀를 두신것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하다. (                    )  
 2) 만족한다. (                    )  
 3) 그저 그렇다. (                    )  
 4) 후회한다. (                    )  
 5) 매우 후회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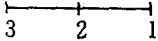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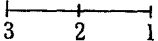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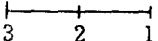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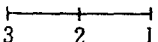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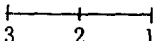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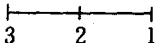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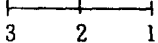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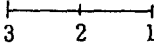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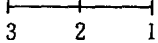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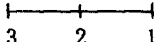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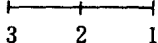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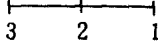


11. 10번 질문에서 후회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어머니 자신이 자녀에게 지나친 신경을 쓰게 되므로 ( )
- 2) 자녀에게 성격상 문제가 생기기 쉬우므로 ( )
- 3) 자녀가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 )
- 4)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아서 ( )
- 5) 주위의 압력 때문에 ( )

\* 어머니께서 자녀들 중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대하는 정도에 따라 3, 2, 1 중 한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혼히 가끔 거의  
있다. 있다.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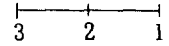
- |   |  |
|---|--|
| 1. 내가 좋다고 생각되면 자녀에게 강제로라도 시킵니다.                               |    |
| 2. 자녀가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은 안돼”라고 금지하곤 합니다.                          |    |
| 3. 자녀가 하고 있는 것을 감독합니다.  |    |
| 4. 자녀의 변명이나 항의를 무시합니다.  |    |
| 5. 가정의 누군가가 자녀를 위협하고 억누릅니다.                                   |    |
| 6. 예의, 규칙, 과외활동(예 : Piano, 미술...) 등에 대하여 엄격하<br>시킵니다.         |   |
| 7. 자녀의 생활에 있어서 제일 문제 삼는 것은 학업준비에 대한 것<br>입니다.                 |  |
| 8. 이 자녀를 다른집 자녀와 비교하여 보고 마음이 상합니다.                            |  |
| 9. 이 자녀의 작품 등에 대하여 불만을 느낍니다.                                  |  |
| 10. 좋은 책, 좋은 TV프로, 좋은 친구, 그밖에 좋은 환경과 설비를<br>주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  |
| 11. 자녀의 장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어떤 희생물 해서라도 목표<br>에 도달하게 하려고 합니다.     |  |
| 12. 자녀가 정신없이 놀고 있는데 억지로 막고, 과외활동(예 : Piano<br>미술...)을 하게 합니다. |  |

흔히 가끔 거의  
있다. 있다.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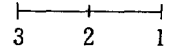
- |  |  |
|--|--|
| 13. 자녀가 하는 일을 삼자코 보고 있지 못하고 간섭을 합니다.                     |  |
| 14. 자녀의 식사나 영양에 대해 말을 많이 합니다.                            |  |
| 15. 친구를 선택하는데 신경을 쓰고 간섭을 합니다.                            |  |
| 16. 자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지시를 하거나 도와 줍니다.                   |  |
| 17. 만화, 영화, 놀이, 싸움 등에 대하여 많이 간섭합니다.                      |  |
| 18. “빨리 자라”, “유치원에 늦는다”라는 등의 시간에 대하여 재촉을 합니다.            |  |
| 19. 자녀의 작은 상처나 병에 대해 필요이상 돌보고 조심합니다.                     |  |
| 20. 손발의 더러움이나 옷의 청결같은 위생에 극성스럽게 주의를 합니다.                 |  |
| 21. 자녀가 위험한 놀이를 하고 있거나 앓나 걱정이 됩니다.                       |  |
| 22. 자녀 혼자서 멀리 있는 가게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  |
| 23. 전부터 자녀가 불행을 당하지 않을까, 또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늘 마음이 쓰여집니다.   |  |
| 24. 어버이로서 자녀를 위하여 더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걱정 합니다.                 |  |
| 25. 자녀를 친구들과 놀게 하지 않고, 어른이 상대하여 줍니다.                     |  |
| 26. 자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엽고, 이 자녀만이 단 하나의 위안의 존재가 됩니다. |  |
| 27. 친구에게 맞거나, 선생님에게 매를 맞으면 성을 내고 오히려 자녀를 벌하는 일이 있습니다.    |  |
| 28. 자녀가 집에 있지 않으면 섭섭하고 허전한 생각이 듭니다.                      |  |
| 29. 놀이든 공부든 자녀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상대하여 줍니다.                  |  |
| 30. 자녀를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하려합니다.                         |  |

흔히 가끔 거의  
있다. 있다.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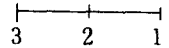
31. 끈덕지게 조르면 최후에는 아버지가 지고 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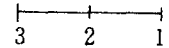
32.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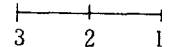
33. 꼭 해야 할 일이라도 싫다고 하면 묵인하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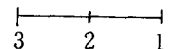
34. 자녀가 바라는 것이면 무리를 해서라도 사서 해 줍니다.



35. 자녀가 재미를 붙이고 있으면 나쁜 짓이라도 금하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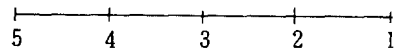
36. 무엇이냐 자녀 본위로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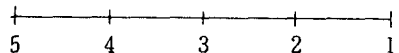
\* 다음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대상자녀의 행동 정도에 따라 5, 4, 3, 2, 1 중 한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아 주 약 간 중 간 약 간 전 혀  
그렇다. 그렇다. 정 도 않 다. 않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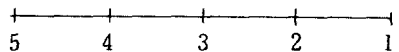
1. 다른 아이와 협동적인 놀이(역할, 놀이, 주고 받기 등)를 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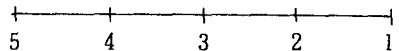
2. 다른 아이의 리드(선도)에 잘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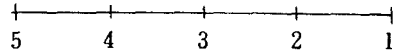
3. 자신의 놀이에 다른 아이가 끼어들어도 거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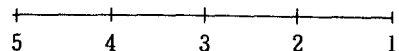
4. 친구와 놀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화를 내고 싸우길 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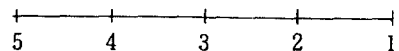
5.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인식하면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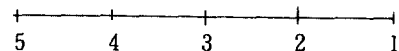
6. 누가 말할때는 그사람에게 귀를 기울인다.



7.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다 자기만 가지려고 한다.



8. 어려운 일이나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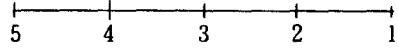


아 주 약 간 중 간 약 간 전 혀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정 도 많 다. 많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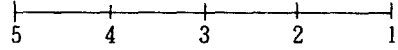
- |   |  |
|---|--|
| <p>9. 아이 자신의 흥미에 따라서만 놀려고 한다.</p>                       |  |
| <p>10. 자기물건을 다른 아이와 나누어 가지고 논다.</p>                     |  |
| <p>11. 자기차레나 규칙을 알고 하는 게임 (윷놀이, 다이아몬드게임)을 잘 할 수 있다.</p> |  |
| <p>12. 남의 놀이감이 마음에 들면 무조건 사달라고 조른다.</p>                 |  |
| <p>13. 유치원에 갈 준비는 스스로 알아서 한다.</p>                       |  |
| <p>14. 내가 아이의 말을 들어 주지 않으면 울거나 짜증을 부린다.</p>             |  |
| <p>15. 무슨 일이든지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p>                |  |
| <p>16. 어떤 일이든지 자신있게 하지 못하고 망서리다가 한다.</p>                |  |
| <p>17. 놀던 장난감은 반드시 제자리에 정돈해 둔다.</p>                     |  |
| <p>18. 싫고, 좋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p>                      |  |
| <p>19. 처음 보는 아이에게 먼저 아는체를 하고, 같이 놀기도 한다.</p>            |  |
| <p>20. 혼자서 노는 놀이를 더 좋아한다.</p>                           |  |
| <p>21. 다른 아이에 의해 놀이 친구로 잘 선택된다.</p>                     |  |
| <p>22. 아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아는체를 한다.</p>                       |  |
| <p>23. 놀이 친구에게 우리집으로 가자고 잘 청한다.</p>                     |  |

아 주 약 간 중 간 약 간 전 혀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정 도 않 다. 않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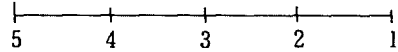
24.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를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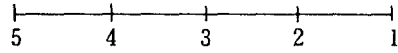
25. 자기 옷을 혼자서 챙겨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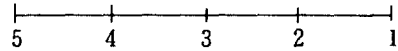
26. 하기 싫은 일도 싫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잘한다.



27. 부모의 심부름이나 할 수 있는 일은 기꺼이 한다.



28. 낯선 환경 (유치원 입학, 남의 집)에 적응을 잘한다.



— 어머니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